

“다음 명절엔 여자친구 꼭 데려갈게요”

■ 고향 못가는 직장인·유학생 등 5명이 쓴 설 편지

광주 유학 호남대생 “어머님께 밥한끼 사드리고 싶어요”

수원 삼성전자 직원·유학생 등 가족에 애절한 사랑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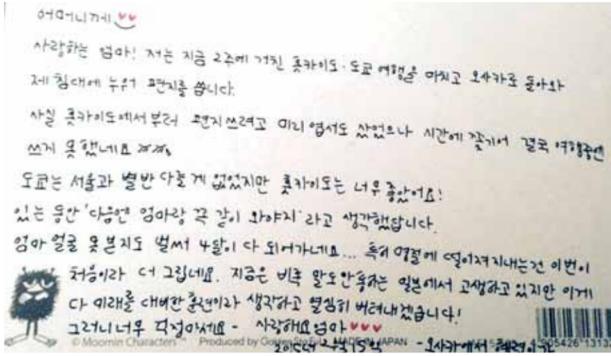
설 명절 귀성 행렬 3300만 명. 하지만 오랜만에 가족을 만날 부푼 마음을 뒤로 한 채 취업 준비·특근·해외 유학 등으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대신 부모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은 손편지를 남겼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설비직원의 정자현(29)씨는 명절 동안 고향인 여수에 가지 못하고 3교대 근무를 한다. 직장 생활 2년 차에 접어드는 정씨는 반도체 공장이 365일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탓에 동료에게 휴일을 양보하고 특근을 맡았다. 전남대에서 공부한 스무 살 때부터 자취를 했지만 이번처럼 명절을 가족과 보내지 못한 적은 처음이다. 대신 명절이 끝난 뒤 휴가를 내서 부모님과 홍콩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웠다. 정씨는 지역대학 출신이라는 약점에도 취업난을 뚫고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던 것은 “37년간 한결같이 직장에서 묵묵히 일한 아버지(59)를 닮으려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아젠 아

버지처럼 든든한 가정이 되는 게 목표인 정씨는 “다음 명절에는 꼭 여자친구와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설 명절 기간에 학교 기숙사를 벗어나 자취생활을 시작하는 구동환(호남대 축구학과 3년)씨는 최근 들어 ‘엄마 김장김치’가 간절하다. 구씨는 축구 전문 기자의 꿈을 위해 25살의 나이에 태어나고 자란 서울을 벗어나 광주 호남대에 입학했다. 신문방송학 복수전공에 대학 신문방송사 편집국장까지신받으면서 또래 친구들이 연휴의 달콤함을 즐길 때 홀로 학교에 남아 공부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다. 편지 끝에는 어머니 홍정숙(여·47)씨에게 “마트 휴가 내고 내려오시면 대학가 맛집에서 밥 한끼 사드리고 싶어요”라며 추신을 남겼다.

이역만리에서 가족의 안부를 묻는 편지도 도착했다. 최기백(24)씨는 호주에서 세



일본 오사카에서 관광취업(워킹 홀리데이) 중인 고혜련씨가 어머니 김희경(57)씨에게 부친 엽서.

상에 돌도 없는 우리 엄마 유호순(60) 여자 남편’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보냈다. 최씨는 대학에 휴학계를 낸 뒤 필리핀과 호주 유학원에서 조교를 하며 3년째 태국 살이를 하고 있다. 명절은 물론 어머니 생일도 챙기지 못한 최씨가 가장 아프게 들은 말은 “내가 자란 만큼 엄마가 늙는 것”이라는 어머니의 한마디였다. 늦둥이인 최씨는 명절 때마다 ‘명절 음식은 챙겨 먹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수화기 너머로 묻는 어머니의 근심에 죄송할 따름이다.

고혜련(여·27)씨는 지난해 10월 대학에서 전공한 일본어를 더 배우기 위해 일본 오사카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전선으로 뛰어드는 대신 해외에서 역량을 키우려는 취지로 현지 호스텔에서 일하고 있다. 최근 휴가를 얻어 홀로 홋카이도·도쿄 여행을 다녀온

고씨는 ‘어머니와 다시 이곳에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애뜻함을 표현했다. 편지글을 맺으면서 “미래에 대한 훈련이라 생각하고 고생을 버텨내겠다”며 외동똥을 격려했고 있을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광주에 터를 잡은 지 1년째 되는 아일랜드 출신 키아런 오코넬(25)씨는 한국에 관심이 많은 가족에게 설날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최대 명절 ‘Seollal(설날)’에는 가족과 함께 새해를 축하하기에 편지를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코넬씨는 지난해 광주에서 지낸 1년을 카메라 렌즈에 담은 영상 ‘빛의 도시(City of Light)’를 유튜브에 올려 고국의 친지에게 광주의 아름다움을 알렸다. 그는 고국 아일랜드의 9시간 빠른 시차에 맞춰 부모님께 화상 통화로 새해 인사를 할 예정이다.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7 | 해질 18:16 | 달뜨기 05:28 | 달지기 16:24

구름도 반기는 고향길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다 오전부터 구름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 지역별 날씨 (°C)

| | | | | | |
|----|-------|-----|-----|-------|-----|
| 광주 | 구름많음 | 3/6 | 보성 | 구름많음 | 2/6 |
| 목포 | 구름많음 | 2/5 | 순천 | 구름많음 | 3/8 |
| 여수 | 구름많음 | 4/8 | 영광 | 구름많음 | 2/5 |
| 나주 | 구름많음 | 3/7 | 진도 | 구름많음 | 2/6 |
| 완도 | 구름많음 | 3/5 | 전주 | 비온뒤 맑 | 2/5 |
| 구례 | 구름많음 | 2/6 | 군산 | 구름많음 | 2/4 |
| 강진 | 구름많음 | 3/5 | 남원 | 구름많음 | 2/5 |
| 해남 | 구름많음 | 3/6 | 홍산도 | 구름많음 | 4/6 |
| 장성 | 비온뒤 맑 | 2/5 | | | |

◇ 바다 날씨

| 지역 | 방향 | 오전 | | 오후 | |
|----|----|-------|---------|-------|---------|
| | | 파고(m) | 풍향 | 파고(m) | 풍향 |
| 서해 | 남해 | 북서~북 | 1.0~2.5 | 북서~북 | 1.0~2.5 |
| | 남부 | 북서~북 | 2.0~3.0 | 북서~북 | 2.0~3.0 |
| 남해 | 남해 | 북서~북 | 1.0~2.0 | 북서~북 | 1.0~2.0 |
| | 서부 | 북서~북 | 1.5~2.5 | 북서~북 | 1.5~3.0 |
| 동해 | 남해 | 서~북서 | 1.0~2.0 | 북서~북 | 1.0~2.5 |
| | 서부 | 서~북서 | 1.0~2.0 | 북서~북 | 1.0~2.5 |

◇ 생활지수

| | |
|----|----|
| 동파 | 25 |
| 운동 | 30 |
| 빨래 | 30 |

◇ 주간 날씨

| 날짜 | 18(수) | 19(목) | 20(금) | 21(토) | 22(일) | 23(월) | 24(화) |
|----|-------|-------|-------|-------|-------|-------|-------|
| 날씨 | ☀ | ☀ | ☀ | ☁ | ☁ | ☀ | ☀ |
| 기온 | 2/7 | -2/10 | 0/12 | 2/12 | 6/12 | 2/11 | 2/9 |

‘우후죽순’ 요양병원 5년새 절반이 문닫아

과잉공급·경쟁심화 ‘악순환’

지난 10년간 요양병원이 40%나 늘어나면서 양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개업한 요양병원의 절반은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의 높은 폐업률은 기관의 과잉공급과 경쟁심화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커 이로운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대한사회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 실린 ‘병원 신증상의 현황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요양병원 기관수는 68개소에서 1천87개로 연평균 40.1%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증가율은 일반 병원과 의원의 증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같은 기

간 병원은 연평균 5.6%, 의원은 연평균 4.9% 늘었다.

높은 요양기관의 증가율은 폐업 증가율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09~2013년 5년간 신규 개설된 요양병원은 연평균 220개였는데 이중 절반인 112개 기관이 폐업했다.

요양병원의 높은 폐업률 만큼 큰 문제는 요양병원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병원 규모와 의료인력 확보 수준 등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9~2013년 기관당 병상 수는 상급종합병원은 연평균 62병상 늘었으나 기관 수가 많은 요양병원은 연평균 38병상만 증가했다.

100병상당 의료인력수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요양병원은 감소 추세였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설 연휴 비소식...귀성길 운전 조심하세요

설 연휴기간 귀성·귀경길엔 비가 내릴 전망이어서 승용차를 이용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귀성이 시작되는 17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새벽 한때 비가 온 뒤 개겼으나 서해안 지방엔 밤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라고 16일 밝혔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

은 5~8도 분포를 보이겠다.

설 연휴 기간인 18일~20일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돼 고향 방문과 성묘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아침·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1~3도 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설 연휴 후반인 21일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박기용기자 pboxer@



봄의 전령 남매화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16일 장성 영천마을 김중우(83)씨 덕 앞 마당에 매화의 한 종류인 ‘남매화’가 만개해 성큼 다가온 봄을 알리고 있다.

공장매각

도장·도금 공장 매각 및 임대
공장부지 18,549평·건물 3,000평

소재지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 1241-74
현황 아연도금 연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1메가)
토지면적 61,321㎡(18,549평)
공장면적 10,000㎡(3,025평) (아연도금 공장 1,000평, 도장공장 2,000평)
물류면적 51,674㎡(15,631평)
보유설비 산처리/도금 설비, 환경설비, 표면처리 설비, 크레인 설비, 전기 950kw

매각 또는 임대 협의 가능
담당자 010-6318-9611

